

전이성 폐암의 외과적 치료

울산의대 서울 중앙병원
김동관·박승일·손광현

저자들은 1990년 1월부터 1996년 6월까지 전이성 폐암을 완전절제했던 16명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적 양상을 조사하였다.

환자는 남, 녀 각 8례였으며, 평균연령은 45.9 ± 3.8 세였다. 원발종양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은 암종(carcinoma) 10례, 육종(sarcoma) 3례, 악성 섬유성 조직구종(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) 2례, 흑색종 1례였으며, 암종에는 유방암 3례, 직장암 2례, 위암, 간암, 신세포암 및 비후두암이 각각 1례였고, 위암과 직장암이 동시에 있었던 경우가 1례였다. 육종은 골육종 2례, 자궁횡문근육종 1례였다. 수술은 양측성의 경우는 정중흉골 절개로, 일측성의 경우는 개흉술로 시행하였다. 수술은 16명의 환자에서 총 17례를 시행하였고, 췌기절제 9례, 단일폐엽절제 7례, 쌍폐엽절제 1례였다. Tumor Free Interval은 최단 1개월에서 최장 67개월로 평균 20.3 ± 4.7 개월이었다. 전이병소의 위치는 암종의 경우 전부 일측성으로 발생한 반면, 비암종의 경우 일측성 1례, 양측성 5례로 비암종군이 암종군에 비해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($p < 0.01$). 또, 전이 병소의 갯수는 암종의 경우 평균 1.1 ± 0.1 개, 비암종의 경우 평균 3.2 ± 0.6 개로 비암종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($p < 0.01$). 수술로 인한 사망은 없었으며, 합병증은 지속적인 공기누출이 1례 있었다. 수술후 추적기간은 2개월에서 30개월로 평균 9.6 ± 2.1 개월이었다. 추적기간중 간암환자에서 수술후 13개월에 반대측에 또 다른 전이병소가 발생되어, 췌기절제를 시행하였다. 추적기간중 총 4명이 사망하였는데, 암종군에서 1례, 비암종군에서 3례 사망하였다. 6개월 생존율은 전체 93.8%, 암종군 100%, 비암종군 83.3% 였으며, 1년 생존율은 전체 72.9%, 암종군 100%, 비암종군 27.8%로, 두 군간의 생존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($p < 0.05$). 전체 환자의 2년 생존율은 60.8%였다.

결론적으로 전이성 폐암의 수술후 생존율은 만족할만 하며, 적극적으로 완전절제 하는 것이 요구된다. 암종군과 비암종군의 생존율에 대해서는 더 많은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추적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 비암종군이 암종군에 비해 전이병소가 양측성 다발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나, 이는 폐에서 발생한 제 2의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암종간의 감별이 어려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